

# 올해부터 재가종무원 상설 의무교육

## 종단 인재양성 '시동'

종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상설교육 토대가 마련됐다. 조계종 총무원이 올해부터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직영사찰, 교구본사 종무원이 참여하는 '2014년 종무원 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스님들을 위한 연수교육과 특강 형식의 단편적인 교육은 진행됐지만, 종단 차원에서 종무원들을 위한 체계적인 상설교육이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직영사찰의 일반직 종무원들은 올해부터 인문사회특강(TED)을 포함한 3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비는 전액 종단에서 부담하며 이수 여부는 인

사고과에 반영된다. 단 교구본사 종무원은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며 각 사찰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 참여하도록 했다. 현재 총무원 등 중앙

**중앙 및 산하기관은  
매년 3개 이상 이수**

**직무능력 향상 토대  
본말로 점차 확산**

의 의무교육 대상자는 250여 명, 자발적 선택이 가능한 교구본사는 200여 명으로 파악됐다. 총무원 총무부는 "그동안 종단이 필요로 하는 종무행정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

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지속됐다"면서 "이런 요구에 맞춰 상설적인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할 것이며, 이를 통해 종무원들은 개인별 직무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교육은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무원 연수 △직무역량향상 과정 △종무행정학교 △수행학교 △인문·사회 과정 △해외성지순례 등 각 분야에서 14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신입종무원 교육, 기획보고서 작성실무 등 실제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무행정 관련 프로그램이 다수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또 템플스테이, 인문사회특강, 교양과정, 인도 등 해외성지순례를 통한 정서함양은 물론 사회봉

사 과정을 통한 자비나눔의 실천에 이르기까지 종단의 인재상 구현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이뤄진다.

총무원은 1차적으로 중앙에 초점을 맞춰 제도정착에 주력하는 한편 교구본·말사 등 단계적으로 지역사찰의 종무원의 참여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12일 열린 제1차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성동 총무부 팀장은 "시행 첫해에는 중앙 종무원 교육에 집중하고 앞으로 지역 사찰 종무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후 '종단 인재'와 같은 독립기구를 설립해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정철 기자 hjc@bulgyo.com**

# “수도권 포교 조직망 구축에 박차”

**직할 교구총회...새해 주요 사업계획 확정  
주지인사고과 최우수 평중·계호스님 표창**

조계종이 올해 직할교구 예산을 3억9935만원으로 책정하고 수도권 포교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직할교구는 지난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1차 직할 교구총회'를 열고 2013년도 결산, 2014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 등을 심의했다.

새해 예산은 3억9935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000여 만원 증가했다. 또 승려복지 특별회계 2억47만1000원, 퇴직충당금 특별회계 1401만549원을 확정했다. 일반예산 가운데 수도

권 포교 활성화 사업에 지난해 보다 3400여만원을 증액한 6162만원이 책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 직할교구 사생대회, 자원봉사자 교육, 전통등 강습회를 열 계획이다.

또 서울시 각 구별 '조계종 주지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신도인원들 간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사찰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포교 활성화를 위한 조직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사찰 실태조사 및 장기 미입명 사찰 감소를 통한 공부(公簿) 현실화를 핵심목표로 삼고 주지 인사평가, 종무행정 교육, 의료비와 요양비 지



평중스님 계호스님

원을 위한 직할승려복지회 구성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직할교구는 교구위상 강화 및 수도권 포교 활성화를 위해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서울과 강화 등 지역별 조계종주지협의회가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도록 지원하며 사찰운영위원

회를 구성해 모범적인 사찰은 매년 종단차원에서 격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직할교구 상임위원에 △평중스님(영화사) △범장스님(범장사) △도서스님(도선사) △도호스님(호국지장사) △해초스님(사자암) △주혜스님(원적정사) △우봉스님(호암사) △정호스님(승가사) △계호스님(진관사) △경륜스님(석불사)을 선출했다. 상임위원에 선출된 평중스님과 계호스님은 주지인사고과 최우수사찰로 선정돼 이날 총무원장 자승스님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또 이 자리에서는 안전 심의와 함께 효율적인 교구운영을 위한 '직할교구 분구'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허정철 기자**

# “청정선거 위해 역량 집중 합리적인 양형기준 마련”

2014 새해계획 총무원에게 듣는다/ 호법부장 원명스님



“  
종도들이  
수행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는  
부서로 거듭날 것”

“올해 종단 여러 현안 가운데 하반기에 예정된 제16대 중앙총회회의원 선거에 종도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교계 안팎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청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부서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원명스님(사진)은 지난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집무실에서 '청정 선거 구현'을 강조하며 새해 호법부 업무기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호법부장 원명스님은 이 자리에서 “전국에서 치러질 중앙총회 선거를 앞두고 금권, 부정, 향응 등 후보들 간의 과열된 경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종법에 어긋난 선거행위를 했다면 지위고하와 당선여부에 관계 없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선거로 인한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선거 행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종단의 의지가 담겨있다. 앞서 호법부는 오는 27일 치러질 마곡사 총회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정선거 홍보자 마곡사를 방문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적극적인 제도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오는 6월 중앙총회에서 다뤄질 '승려법 개정안'의 세부안 마련도 호법부 주요 업무 중 하나다. 호법부가 추진하는 승려법 개정안은 합리적인 양형기준 마련과 변상금의 현실화 등을 담고 있다. 원명스님은 “호법부와 호계원 심판에서 나온 양형이 격차가 지나치게 심하면 논란

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며 “더불어 종단으로 환수되는 벌금 형식인 '변상금'도 현실화시켜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징계가 풀리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호법부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원명스님은 “자기 자신을 낮춰서 일해야 하는 호법부는 업무특성상 아직도 종단 내에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모든 조사과정에서 스님들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도록 교육하고 있는 만큼 종도들이 수행과 포교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는 부서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불순한 의도로 종단과 불교를 음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스님은 “자비 종단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참회한다면 종도들에게 이해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를 거부한 지속적인 해종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정철 기자 hjc@bulgyo.com

# ‘법안스님과 화엄행자’ 1만 달러

동행·로터스월드 통해 라오스 어린이 '지원'

서울 금천사 주지 법안스님과 함께 수행하고 있는 화엄행자들이 라오스 어린이들을 위해 정성을 보냈다. 법안스님과 화엄행자들은 지난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기금 전달식을 갖고 아름다운동행에 1만 달러(약 1067만원)를 전달했다.

법안스님과 인연을 맺은 이들로

구성된 화엄행자들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스님과 함께 1000일 기도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기금 전달은 8000일 기도 회향을 맞아 함께 수행하고 있는 이들이 십시일반으로 정성을 모아 마련했다. 이날 전달된 기금은 로터스월드가 추진하고 있는 라오스 저소득 어린이 도서관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금천사 주지 법안스님(오른쪽에서 두번째)과 함께 수행하고 있는 화엄행자들이 라오스 도서관 지원 기금 1만 달러를 전달했다.

전달식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전달식은 십시일반 나눔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법안스님은 “아름다운 동행이 설립이후 이제는 모금 기관

으로 자리매김한 것 같다”며 “라오스 어린이들을 위해 지원하게 됐다. 1000일 기도 회향 때까지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염태규 기자 che11@bulgyo.com**

# “술선수범...동문들 참여 이어지길”

김진규 엠엔지자동화 대표  
동국대 발전기금 1억 기부



김진규 엠엔지자동화 대표가 지난 17일 행정대학원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동국대에 1억 원을 기부했다.<사진>

행정대학원 제7기 소통리더십 최고위과정을 마친 김진규 동문은 “최근 동문회에서 장학 사업을 시작했는데 술선수범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며 “학교 발전을 위한 기부에 많은 동문들의 참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희옥 총장은 “동문들 기

부가 학교를 발전시키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최고위과정을 통해 배운 지식과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동문 모두가 더욱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달식에는 심재승 푸르메종합건실 회장, 이효상 복지TV 본부장, 이정윤 일미캐터링 이사 등 행정대학원 소통리더십최고위과정 동문들도 함께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 중앙승가대학교

## 2014 학년도 입학식 및 제6대 총장취임식

본교 제6대 총장 행정학박사 碧山 圓行스님의 취임식과 2014년 입학식을 아래와 같이 가지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2558(2014)년 3월 3일(월) 오후 1시

| 장 소 | 본교 김포학사 자비관 4층 대강당

※축하화환은 정중히 사양하며, 화환대신 쌀로 보내주시면 소중한 마음 담아 김포지역 사회의 뜻 깊은 곳에 쓰겠습니다.



중 앙 승 가 대 학 교

415-768 경기도 김포시 승가로 123(풍무동) 문의 031)980-7713~5

# 중앙승가대학교 동문 5기

## 벽산 원행스님의

## 제6대 총장취임을

## 축하드립니다.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장 범해 합장

